

“큰스님, 법은이 망극합니다”

경허 스님 수행 일화

㉘ 곡차 동이의 법력

보은 범주사에서 진하(震河) 스님과의 일화다. 범주사에서 강백으로 이름을 크게 떨치던 진하 스님은 평소 경허 스님을 좋지 않게 평하고 있었다. 진하 스님은 학인 스님들로 하여금 경허 스님을 혼낼 작정을 하고 있었다. 이러던 중 우연히 경허 스님이 범주사를 찾았다. 버리고 버린 학인 스님들은 경허 스님에게 봉변을 줄 계획을 짜 놓고 있었다.

형세와 분위기를 감지해서일까. 경허 스님은 큰 방에 좌정하자마자 느닷없이 우렁찬 사자후를 토했다. “자고로 종사(宗師)가 선사(禪師)에게 이런 법이 없다!”

경허 스님의 한마디에 진하 스님은 그만 아찔해졌다. 평소예 경허 스님의 무예행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 불만에 찬 비평을 늘어놓던 진하 스님은 경허 스님을 친견하자 첫 눈에 존경심이 나게 됐다.

진하 스님은 머리를 숙여 아만(我慢)을 없애고 학인들이 불쌍한 것을 못하도록 자신해 막기에 바빴다. 진하 스님은 시간이 나는 대로 경허 스님을 모시고 여법하게 법을 청했다. 또, 자신이 직접 곡차를 받아 공양을 올리기도 했다.

부산 범어사에서 경산(擎山) 스님과의 일화다. 경허 스님이 어느 날 범어사에서 경산 스님과 부산진을 거쳐 해운대를 돌아보고 오게 됐다. 경산 스님은 기분이 장대하고 그 힘이 장사였으며 한때 결승으로 유명한 스님이었다.

경산 스님은 경허 스님이 곡차를 즐겨 드신다는 말을 미리 접하고 경허 스님이 곡차를 얼마만큼 마시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경산 스님은 경허 스님을 모시고 일부러 주점 인근을 다니며 스님이 곡차를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경허 스님이 곡차 잔을 쓰지도 않고 동이째로 마시는 것이 아닌가. 자신도 대작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따라 마실 수 없었다. 경산 스님은 가끔 한잔 씩 경허 스님이 권하는 것을 받아 마시다 만취

하게 됐다. 경산 스님은 거리에 쓰러져 세상모를 지경이 돼 버렸다.

경허 스님이 이런 경산 스님을 말없이 한 손으로 바꾸니 들 듯 치켜들고 범어사 금강암까지 단숨에 올려다 놓았다고 한다.

㉙ 정 처사와의 사제인연

경허 스님이 천장암에 주석할 때의 일이다. 경허 스님의 명성을 듣고 정 처사(處士)라고 하는 선비가 경허 스님을 만나기 위해 천장암을 찾았다.

정 처사는 천장암 선당방으로 들어가서 경허 스님의 맞은편에 앉았다.

경허 스님과 정 처사는 한문 문장으로 대화를 하는 토사성문(吐辭成文)을 시작했다.

“차처해우벽지(此處海隅僻地)로 구불견룡사(久不見龍蛇)려니 금일래자(今日來者) 시룡야사아(是龍耶蛇耶)?”

“이 곳은 바닷가의 구석진 벽지로서 오랫동안 용도 뱀도 보지 못했는데, 오늘 온 것은 용인가? 뱀인가?”란 뜻이었다.

정 처사는 이 말을 듣자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리며 답했다.

“석가불배 석가불(釋迦佛拜 釋迦佛)이요, 미륵불배 미륵불(미륵불배 미륵불)입니다.

“석가불에게 절하는 것은 석가불이요, 미륵불에게 절하는 것은 미륵불입니다.”

정 처사의 말은 경허 스님에게 절하는 자신은 경허 스님을 알만하며 경허 스님 또한 자신을 알만하다는 것이었다.

서로의 경지를 알아본 경허 스님과 정 처사는 무상의 법연을 맺어 스승과 제자가 됐다. 경허 스님은 정 처사를 맞아들여 정 처사는 사흘 동안 천장암에서 묵으며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선(禪)에 대해 묻고 또 들었다. 서로를 알아보고 뜻이 맞는 그들 사이에 사흘은 오히려 짧은 시간이었다.



그림 · 박구원

㉚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문답

경허 스님이 천장암에 있을 때 계룡산에 태평 상인(太平上人)이라 불리는 지혜와 덕을 겸비한 스님이 있었다. 태평 스님은 원래 판서집 자제로 어려서 출가해 수행정진에 철저했다.

또 기이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태평 스님이 경허 스님의 도명(道名)을 접하고 스님을 찾아 천장암을 거쳐 다시 서산 부석사로 갔다. 경허 스님이 있는 방 앞에서 태평 스님은 방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여하시(如何是)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이니죠?”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물으니

경허 스님 말없이 주장자로 갈겼다

태평 스님도 주장자로 후려 갈기니

“사자는 사람물고 개는 흙덩이만 쫓네”

달마 조사가 서쪽 인도에서 온 참 뜻이 무엇이나 선문답이었다. 태평 스님에게 경허 스님은 아무 대꾸 없이 주장자를 들어 냈다 후려 갈겼다.

주장자를 맞은 태평 스님이 다시 입을 열기를 “때리는 때렸어도 조사서래의는 아닙니다”고 말했다.

이에 경허 스님은 곧 되받아 물기를 “여하시 조사서래의 인고?” 했다.

이번에는 태평 스님이 주장자로 경허 스님을 후려 갈겼다. 얻어맞은 경허 스님이 말했다.

“사자는 사람을 물거늘(獅子咬人), 어찌 한나라 개는 흙덩이만을 쫓는고(韓盧逐槐)?”

그 소리를 듣고 태평 스님은 공손히 경허 스님에게 아꼈다.

“큰 스님, 법은(法恩)이 망극합니다.”

경허 스님은 웃으며 범담으로 벌걸음을 옮겼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9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으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g

능인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과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성훈따주기 강좌

아름다운 이별여행 준비를 위한 제9기 호스피스 수강생 모집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절차 우리의 현대교육은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각 전문분야의 최고의 강사진(대학 교수, 의료진, 현장 전문가 등)을 모시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불교호스피스 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 ① 일 정 : 2012. 3. 31(토) 오후 1시부터 ~ 4. 1(일) 오후 4시까지
 -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 개강일자 : 2012년 4월 3일(화요일)

※ 교육기간 : 2012년 4월 3일 ~ 6월 19일 (총11회) 매주 화요일

※ 시 간 : 오후 7시 ~ 9시까지

※ 장 소 :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6층 강의실

※ 수 강 료 : 15만원

※ 문의전화 : 313-3060 / 010-2031-1233 (담당 : 박미경)

※ 협 찬 : **불교TV**

대한불교 조계종 수 효 사